

2018년 5월 18일

csf@kiep.go.kr



## 동북아 정세 변화가 中 동베이 경제에 미칠 영향

### 동북아 정세 변화로 中 동베이 지역 경제 ‘호재’...‘다렌’ 동베이 중심 도시로 부상할 전망

-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대외개방이 중국 동베이(东北) 지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랴오닝성(辽宁省)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의 량치둥(梁启东) 부원장은 “북한이 전쟁준비 상태에서 경제 건설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면서 동북아 지역 긴장 국면이 해소됨에 따라 동베이 지역, 특히 국경 지역 도시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그는 “동베이 지역은 대외개방에서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동북아에 있고, 한중일 3국의 경제 총량의 합은 유럽을 뛰어넘는다,”면서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몽고, 동쪽으로는 일본과 한국, 북한, 서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으로 정세 안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았음.
- 헤이룽장(黑龙江) 당대 중국-러시아 지역 경제연구원(当代中俄区域经济研究院)의 쑹쿠이(宋魁) 원장도 “북한이 대외개방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동베이 지역의 부흥과 발전 국면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며 “동베이지역의 도시 구도와 산업이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자오광위안(赵光远) 지린사회과학원(吉林社会科学院) 도시연구소(城市所) 부소장은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면서 동북아 경제에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언급함.
  - 지난 4월 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제3기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로 함.

□ 동북아 정세 완화로 랴오닝성(辽宁省) 다롄(大连)이 중국 동베이 지역의 중심 도시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음.

- 쑹쿠이 원장은 “랴오닝성 다롄이 동베이 진흥의 중심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보았음.
  - 그는 “만약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방과 발전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한중일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동베이 지역 발전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하얼빈(哈尔滨)에서 다롄에 이르는 산업벨트가 조성되고 다롄이 새로운 핵심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함.
  - 그는 또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 기업의 다롄 투자가 증가하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화물이 직접적으로 육로를 통해 중국 동베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개방의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다롄의 동베이 지역에서의 경제 지위가 장강삼각주(长三角)의 상하이(上海)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함.
- 다롄은 중국 동베이 지역에서 경제 총량이 가장 큰 도시임.
  - 올해 1분기 다롄의 경제 규모는 1,550억 8,000만 위안(약 26조 원)으로, 동북아 국제 중심 도시인 선양(沈阳)의 경제 총량(1,247억 위안=약 21조 원)을 뛰어넘었음.
  - 동 기간 나머지 동베이 지역 주요 도시인 하얼빈과 창춘(长春)의 경제 총량은 각각 1,116억 위안(약 19조 원), 1,181억 3,400만 위안(약 20조 원)에 달했음.
- 다롄은 지난 5월 7~8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장소로 주목 받은 바 있음.
- 하지만 리카이(李凯) 동베이대학(东北大学) 중국동베이진흥연구원(中国东北振兴研究院) 부원장은 “현재 다롄의 경제 총량이 선양보다 크지만, 선양의 상주인구와 건설용지가 다롄보다 많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선yang이 동베이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제시함.

□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东)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눈길을 끌고 있음.

- 단둥은 중국 동베이 지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주요 관문으로,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 호전으로 단둥신구(丹东新区)의 부동산 거래 가격은 m<sup>2</sup>당 4,000위안(약 68만 원)에서 최근 5,500~6,000위안(약 93만~102만 원)까지 치솟았음.
  - 심지어 현지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많은 고객들이 북한 부동산 투자에 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힘.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애널리스트는 “단둥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단기적 투기과열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일각에서는 “만약 북한이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문을 개방한다면, 단둥은 큰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 경제권과 환보하이(环渤海) 경제권이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단둥이 제2의 선전(深圳)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음. **CSF**

참고자료

21경제망(21经济网), 东北四大副省级城市规划将调整 谁将成为东北龙头? , 2018. 05. 10  
 계면(界面), 朝鲜开放国门能成为东北经济的“强心针”吗?, 2018. 04. 23  
 봉황망(凤凰网), 外媒: 半岛局势缓和推高丹东房价 中国人想去朝鲜买房, 2018. 05. 04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丹东房价短期内暴涨引关注 专家: 该房市不具可持续性, 2018. 05. 11

(자료정리: CSF, 자료감수: 김익기 중국인민대학 석좌교수)